

우리는 지도를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장보고와 같은 일시적으로 특출한 해양 주의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가장 최근의 봉건왕조였던 조선은 쇠국을 특기로 했습니다.

사대교린 事大交隣은 중국에 사대하고, 주변국과는 이웃으로 지낸다는 조선시대 외교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교류하고 싶진 않지만 지리적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종의 소극적 관리의 대상이었고, 결국 이 교린의 대상에 일본과 여진 정도가 포함됐었죠.

물론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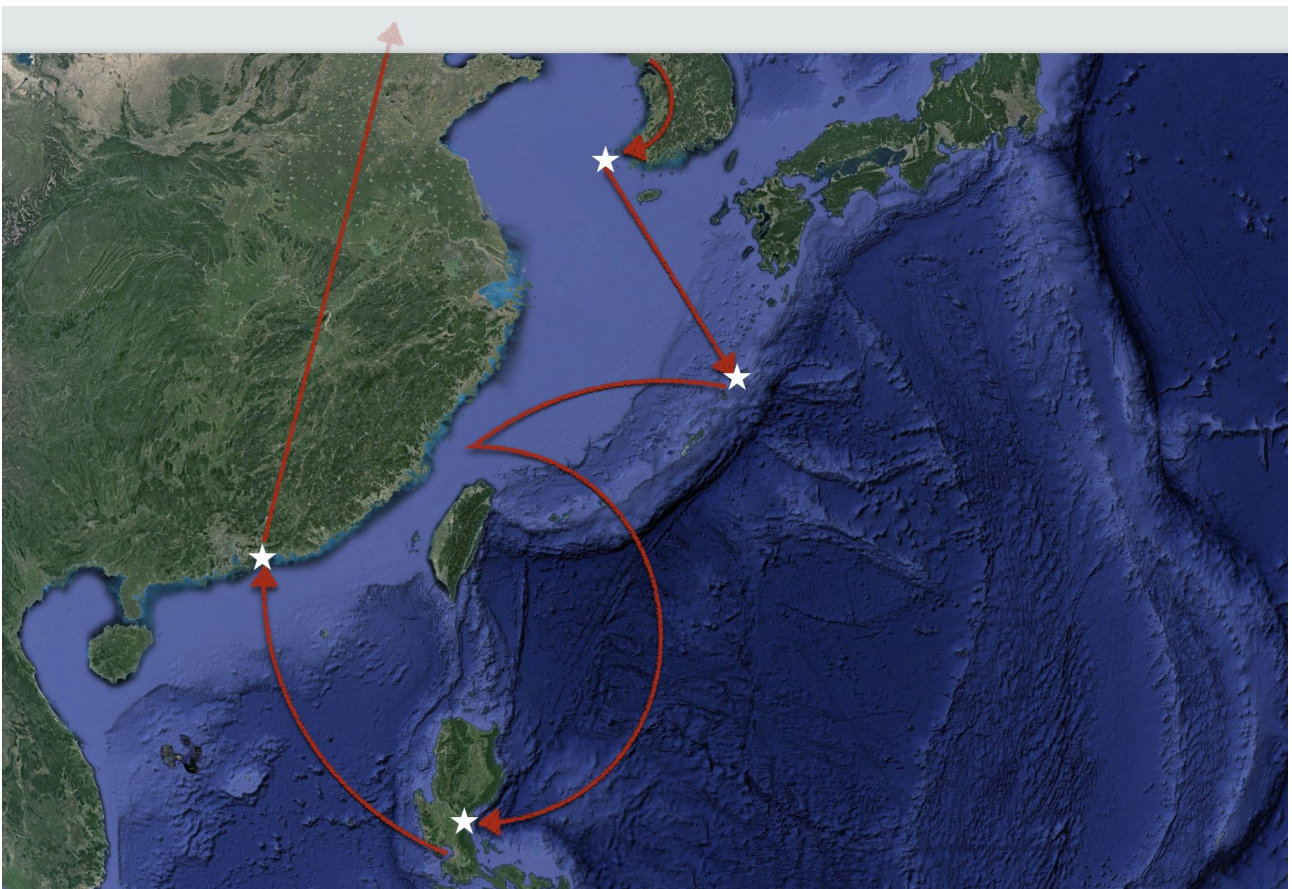
최근에 개봉한 영화 올빼미의 주요 소재인 인조의 맏아들로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서구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소현세자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 사행사로 베이징을 방문했던 수많은 조선 사람이 있었죠. 물론 그들 중 유의미한 기록을 남긴 건 정조 때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 정도뿐이지만요.

문제는 이런 개개인의 경험들이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진 못했습니다. 이게 한계였죠. 외부 문명을 접한 놀라운 충격은 그저 개개인의 특이한 경험으로만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열하일기 또한 베이징과 청더를 다녀온 한 재기발랄한 만담꾼의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죠.

하도 과장과 허황한 내용이 많아 당대, 그리고 한동안 뺑뺑이로 불리던 마르코폴로 그리고 그가 쓴 동방견문록이 대항해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서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이었죠.

문순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살던 홍어장수입니다.



스무 살 때인 1802년 흑산도 인근 태도에서 홍어를 사서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신안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해도 그 주변에 섬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섬을 모두 요리조리 피해서 세상에 직선거리로 913km나 떨어진 류큐 왕국(아마미지마)까지 흘러 갑니다.

당시 류큐 왕국과 조선은 일종의 표류자에 대한 암묵적 상호 보호조치가 있었습니다. 해류 상 오키나와 어민들도 제주도 등으로 많이 표류해왔고, 문순득의 경우처럼 조선에서도 오키나와로 표류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일단 표류자가 나오면 구조한 후 숙식을 제공하다 적당한 기회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법을 택했죠. 그래서 문순득은 운 좋게 류큐 왕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이틀에 한번씩 돼지고기가 나왔다고 하니 그 시절치고는 진짜 상당한 대접이었죠. 문순득은 눈썰미와 귀썰미가 좋았던 사람인것 같습니다. 심지어 류큐어를 배우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류큐 왕국은 2년에 한 번씩 중국으로 사신을 보냈는데요. 그 사행선에 문순득을 딸려 보내, 베이징으로 올린 후, 베이징으로 온 조선 사신에게 문순득을 인계한다는 나름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문순득은 중국의 푸저우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데요. 이 배가 또 풍랑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리핀의 루손섬에 상륙합니다.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 문순득은 여기서도 특유의 생존력을 발휘 9개월이나 머물며 장사까지 하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아마 문순득은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섞여 살고, 외국인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이 기괴한 풍경 말이죠. 그러다 차이나타운을 통해 접촉. 결국 마카오 상선을 타고 마카오에 상륙, 다시 난징과 베이징을 거쳐 1904년 1월 한양에 도착합니다. 루손에서 마카오, 그리고 마카오에서 베이징까지는 스스로 간 겁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요.

**경세유표**  
정약용지음. 문순득의 스페인 마카오 경험을 바탕으로 금과 은을 본위로 하는 화폐개혁의 필요성 주장

**표해시말**

**문순득의 표류기. 정약용의 동생 정약전이 집필. 언어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

**탐라직성방**  
광저우와 나가사키처럼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개항장을 만들자는 주장

**운곡선설**  
정약용의 수제자 이강회 지음. 문순득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양의 범선과 한국 전통 선박을 비교 분석

**표해시말 유니버스**

당시 조선은 국가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으면 사형. 하지만 문순득의 경우 표류민이었기 때문에 예외 조치가 취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가 고향인 우이도로 돌아온 건 1805년 1월, 표류되고 3년 2개월 만이었죠.

문순득의 이야기가 알려진 건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용 형제 때문입니다. 바로 정약용의 동생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곳에서 문순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흥미를 느껴 문순득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표해시말이라는 책이죠.

이 책에는 문순득이 표류하면서 배운 류큐어 81개와 필리핀 북부지방 사투리인 일로카노어 54개도 실려 있어서 언어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1801년에 5명의 외국인이 제주도에 표류했는데, 이 분들이 그간 조선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 베이징으로 보냈는데 베이징에서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반환. 나름 당시에서는 이게 조정의 골아픈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류큐왕국 사신이 조선에 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들과 이야기 해보더니 루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뭐 여기까진 알았지만 이들을 송환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 그냥 제주도에서 살게했는데요. 그러다 누군가가 일전에 표류된 문순득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결국 문순득이 제주로 파견 이들과 대화를 했고, 이들을 송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공으로 양반도 아니고, 글도 깨치지 못한 문순득은 종 2품의 명예관직을 받게됩니다.

이 공으로 양반도 아니고, 글도 깨치지 못한 문순득은 종 2품의 명예관직을 내리게 됩니다.

<p><b>이제현 1288~1367</b></p> <p>충선왕이 서번西蕃, 간쑤지역으로 귀양가자이를 따라가 티베트 문화권에 대한 최초의 자료를 남김</p>	<p><b>혜초 704~787</b></p> <p>인도행을 강행. 왕오천축국전 기술. 한반도인 최초로 이슬람 문명권을 다녀온 사람이기도.</p>	<p><b>이지항 1647~?</b></p> <p>사할린, 혹은 홋카이도로 표류한 조선의 무관. 최초로 아이누인과 접촉. 표주록漂舟錄이라는 책을 남김</p>
<p><b>소현세자 1621~1645</b></p> <p>청제국의 수도인 센양에서 오랜 인질 생활후 청군의 베이징 점령에 함께 참여. 다수의 서양문물을 접함</p>	<p><b>문순득 1777~1847</b></p> <p>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등지를 다녀온 후 남긴 정약전을 통해 남긴 표해시말 漂海始末</p>	<p><b>조완벽 ?~?</b></p> <p>정유재란때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다 능력을 인정, 일본의 거상을 따라 세 차례 베트남을 다녀옴</p>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했다.**

여러나라 사람이 섞여 살면서 외국인도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던 루손의 경제적 풍토는 상업이 천시받고 외국인과 교류가 거의 없던 조선 출신의 문순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훗날 북경에서 문순득 일행을 데리고 귀국한 조선의 관원이 지은 표류주자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흑산도 민속은 매우 어리석어 바다에서 이익을 쫓느라 대부분 곤궁하구려, 원하노니 네 고향엘 가거들랑 농사나 힘쓰게나,



# 우리에게 바다란?

대항해 시대 이후 250년, 세계는 바다를 무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조선 관리는 농자천하지 대분이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19세기초 조선인으로서의 드물게 오키나와, 스페인령 필리핀, 포르투갈령 마카오, 그리고 중국대륙을 남북으로 종단한 문순득의 경험은 국가에 의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 인재가 없었던 것도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건 우리는 스스로 반도에 고립돼 나가려 하지 않았고, 세계의 창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국가는 이들의 경험을 한번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현실로 인해 우리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근대로 가는 길의 첫번째 도상에 대항해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없었죠.

대한제국 시절인 1905년 경부철도가 완공되고, 다시 이를 연결하기 위해 그 유명한 관부연락선,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던 정기 항로가 개설됩니다.

대중국선은 1883년 중국의 초상국, 상하이-나가사키-인천-부산 정기항로 개설한게 시초입니다.

일본 식민지가 되고 나서는 인천발 칭다오 직행, 이후 대련과 옌타이로 가는 일종의 완행 여객선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겐 원망이 가득한 징용선이었겠지만, 어쨌건 한반도 연근해로의 재진출이 19세기말~20세기 초에 이루어집니다. 모두 외국에 의해서죠.

해방을 맞이하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 됩니다. 한국은 드디어 대양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아니 외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한동안 한국인의 바다는 오로지 태평양이었습니다.

그 태평양을 따라 구호선이 왔고, 그 배에 달려온 밀가루와 분유는 한국인의 기근도 막았고, 한국인의 식  
급관도 바뀌었죠.

### 낮선 이와 친구가 되는 방법

🔗 ★ 📌 🗑



가미미가미미


#### [전명윤의 환상타파] 전명윤 |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도쿄의 아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전사자와 중전 뒤 도쿄 전  
방재관을 받고 전범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합사돼 있다. 여기에 뜬금없게도 러다  
비노드 팔이라는 인도인 한명이 함께 모셔져 있다. 그는 도쿄 전방재관의 민사 중  
하-였는데, 유일하게 찬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전범이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  
다.

그는 어차피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가 범죄인데, 공동의 범죄자들끼리 승자와 패자로 나눠 승자가 패자를 범죄  
인 취급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다. 게다가 법률적으로도 도쿄 전방재관 당시 신실한 개량인 예이  
(A)급 전범범칙이 인도적 범죄 개념을 2차 대전 전범들에게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이라고 판단했는데, 그의 이

### 함께 독립을 축하하는 8월15일이라는 꿈

🔗 ★ 📌 🗑



나트르 오디 인도 출라기 자나(해방)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코리터 연합뉴스

#### 전명윤의 환상타파 |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언젠가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도 한때 식민지였던 이야기를 하자 그가 깜짝 놀랐  
던 적이 있다. 제3세계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은 왜 질사는 나라였다고  
알고 있었기에, 한국이 그의 나라의 똑같이 식민지를 경험했고, 비슷한 시기에 독  
립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구상에는 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그 이후 바뀐 세계질서의 와중에 식민지  
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이 많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독립한 나라 중에도 일본군 철군일인 9월2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 베트남 같은 나라도 있고, 해방 직후 독립선언일인 8월17일을 기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있다. 한국은 일본 패망일인 8월15일을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 덕에 독립기념일 자체는 주변에  
서 가장 빠른 편. 확실히 성격이 급하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나라가 이즈음 앞사거나 뒤사거나 독립을 쟁취했  
다. 같은 8월15일을 독립 기점으로 삼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 콩고공화국, 바  
레인, 리히텐슈타인 등 6개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재편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1945년 8월부터  
15년 이내에 독립한 나라는 남북한을 포함해 모두 43개국에 이른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193개국 중 22%가량

저는 이걸 이승만과 태평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시작되고 한국의 경제여건이 수출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석유를 구입하기 위  
해 페르시아만을, 원자재 가공 루트로 남중국해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시대, 우리의 바다가 한번 더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노태우 시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황해와 남중국해는 다시 재발견 되었죠.

우리의 변영은 우리가 바다로 나아갈때 그리고 바다의 영역을 확장할 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한국은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제국주의 초입으로 들어섰습니다.

범 아시아주의는 시도했던 사실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20세기 초반 일본은 힘에 의한 범아시아주의를 구현하려다 실패했죠.

2차 대전이후 세계질서는 모두가 알다시피 누군가의 땅을 빼앗고 점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보야 점령당한 사람들은 결코 동화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지배자들을 축출하  
기 위해 온 힘을 다 해 싸운다는 것을.

그래서 점령이란 결코 실익이 없다는 것을 과거의 제국주의자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초기, 어설픈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었는지요.

앞서 보여줬던 세포이항쟁시기, 돼지기름을 바른 화약카드리지가 바로 그러한 예죠.



조금 더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다면, 조금더 친근하게 다가갔다면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건 태도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벌일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라는 거죠.

인도, 더 나아가 아시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인도에서 관료들을 만날때가 종종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도 ODA건으로 인도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대해서 모르는 건 인도도 마찬가지라,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한국이 원래 잘 살았던 나라  
줄 압니다. 그러다보니 더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죠.

그럴때 쓰는 키워드중 하나는 8월 15일입니다.

우리의 광복절이고, 인도도 같은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인도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한국이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인도인은 거의 없습니  
다.

백이면 아흔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식민지에서 독립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구요.

저는 재빨리 받아칩니다. 원래 부자였던 일본이 인도가 잘사는 방법을 더 잘 코치할 수 있을까, 같이 못  
살다가 부자가 된 한국이 인도를 더 잘 코치할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만 대화하면 반은 성공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인도와 똑같은 식민지배를 받다 독립했고, 경제적 성공까지 이뤘다는 서사.

인도인 관료입장에서 일본이 더 친근할까요? 한국이 더 친근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도의 광복절과 한국의 광복절이 같은 날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어때요? 우리도 인도라는 나라가 조금 더 친근해지지 않았나요?

비록 자의에 의함과 타의에 의함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와 한국은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 그렇다면 실향민이 있단 말이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 와중에서도 1400만명의 양측 난민이 발생했고, 100만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전쟁 버금가죠?

그리고 난민들로 인한 서사. 고향에 두고 온 집, 가족,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도 두나라는 비슷합니다.

심지어 냉면처럼 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요리도 인도에 있죠.

두 나라는 꽤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친구를 사귄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공통점.

친구든 협상이든 기본중의 기본은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공통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돈다발을 흔들며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서사를 공유하면서 동질감을 찾을때 친구가 되는거죠.

자, 인도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이 없으니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가볼까요?